

**2018 경기도 국어책임관 국어문화원
공동 연찬회**

**2018년 9월 4일(화)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문화체육관광부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

2018 경기도 국어책임관 국어문화원 공동 연찬회 자료집

-
- 일시: 2018년 9월 4일(화)
 - 장소: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국제문화관 520호
 -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
 - 협력: 경기도청
-



문화체육관광부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

2018 경기도 국어책임관 국어문화원
공동 연찬회 일정

사회: 백경미(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 책임연구원)

14:00-14:10 등록 및 개회

14:10-14:15 원장 인사말 (김태경 /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장)

14:15-14:20 국어책임관 인사말 (안동광 / 경기도 문화정책과장)

14:20-14:40 ■ 국어책임관 제도 소개
(신능호 /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주무관)

14:40-16:00 ■ 국어책임관과 국어문화원의 협력 방안 발표 및 토의
(발표: 백경미 / 토의 진행: 임유종)

16:00-16:15 기념 촬영 및 휴식

16:15-16:55 ■ 특강: 경기도 공공 문서 개선 방안-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임유종 /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 총무부장)

16:55-17:00 폐회

차 례

□ 국어책임관 제도 소개	1
□ 국어책임관과 국어문화원의 협력 방안 발표 및 토의	14
□ 경기도 공공 문서 개선 방안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25

경기 지역 국어책임관 · 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

국어책임관 제도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신능호 국어전문관



국어책임관 제도 안내

1. 국어책임관 제도 안내

국어책임관의 법적 근거

국어기본법(2005. 1. 27. 제정)

문화예술진흥법(일부) +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국어 관련 법률

1. 국어책임관 제도 안내

국어책임관의 법적 근거

국어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국어책임관 제도 안내

국어책임관의 법적 근거

국어기본법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 국어책임관 제도 안내

국어책임관의 법적 근거

국어기본법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2017. 9. 22.)**

1. 국어책임관 제도 안내

국어책임관이란?

국어책임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

1. 국어책임관 제도 안내

누가 국어책임관이 되는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

- ①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홍보나 국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고...

1. 국어책임관 제도 안내

국어책임관 수

중앙행정기관 1587명(중앙 48명 + 소속 1539명)

지방자치단체 243명(광역 17명 + 기초 226명)

2018년 3월 기준 **총 1830명**

1. 국어책임관 제도 안내

국어전문관

국어전문관

부족할 수도 있는 국어책임관의 국어 관련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별도의 국어 전문 인력

국어전문관이 없다면 내가 국어 전문가가 되자

2

국어책임관의 역할

2. 국어책임관의 역할

국어책임관의 임무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

1. 정책을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업무 분장 명시

2. 국어책임관의 역할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

쉬운 공공언어의 확산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성과를 확산
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2. 국어책임관의 역할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

정책용어(정책명, 사업명, 제도명): 노노케어(老老
Care), U-city, Wee 프로젝트

행정용어: 아국(우리나라), 수의시담(가격 협의)

전문용어: 스마트그리드(지능형전력망), 퍼블리시티권
(인격표지권), 오염우심해역(오염심각해역)

2. 국어책임관의 역할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

정책용어(정책명, 사업명, 제도명): **노노케어(老老 Care), U-city, Wee 프로젝트**

행정용어: 아국(**우리나라**), 수의시담(**가격 협의**)

전문용어: 스마트그리드(**지능형전력망**), 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권**), 오염우심해역(**오염심각해역**)

2. 국어책임관의 역할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

중앙행정기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자체 우리말 다듬기 위원회

- 전문용어 순화 자료집 발간
- 전문용어 순화 사례 누리집 게시
- 소속·산하 기관에 공문으로 통보

2. 국어책임관의 역할

정확한 문장 사용 장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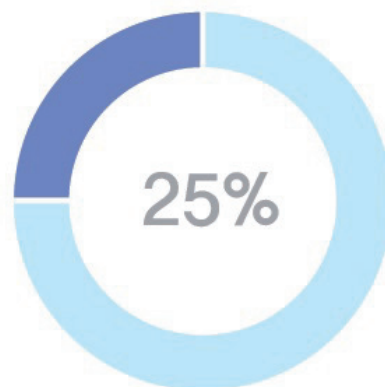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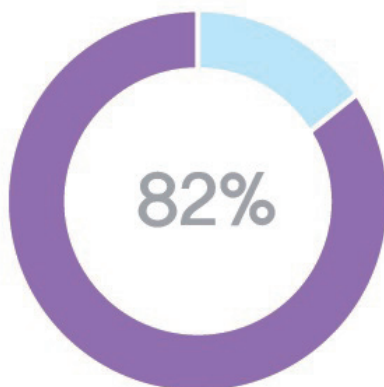
문장의 정확성

어문 규범(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준수

문법적이지 않은 문장(비문) 발생 주의

2. 국어책임관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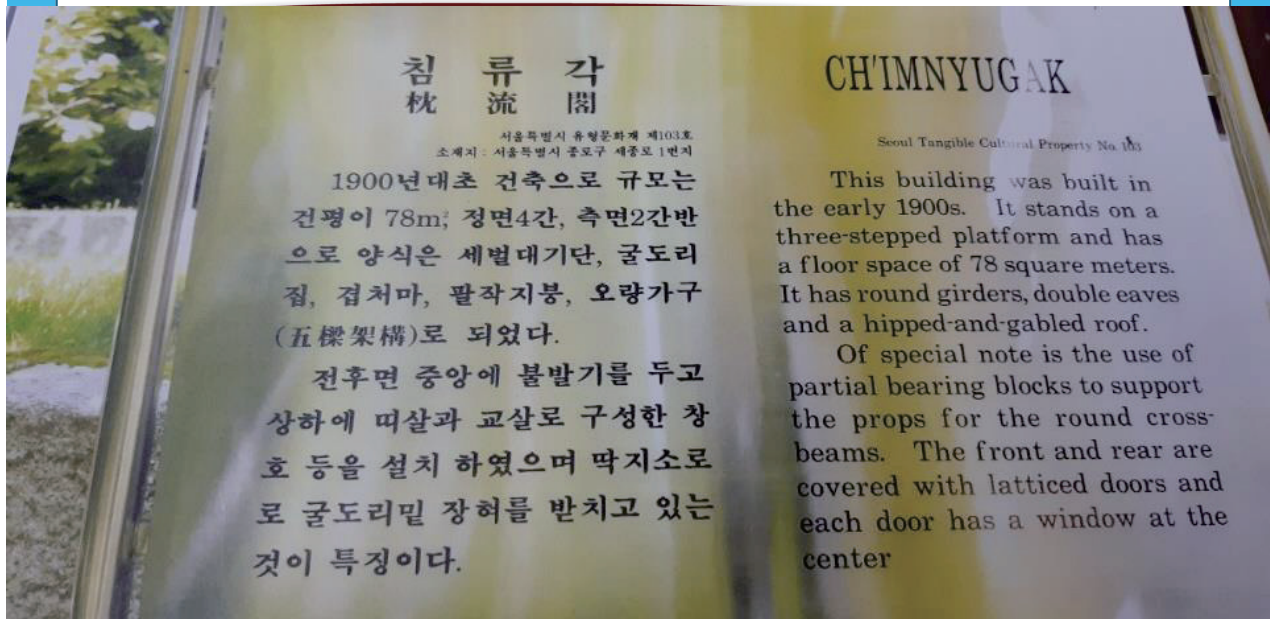


| 2017년 6월 현재 조례 제정 현황 |

■ 광역지방자치단체 17곳 중 14곳(82%)

■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곳 중 57곳(25%)

2. 국어책임관의 역할



2. 국어책임관의 역할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

공무원이 공무로 사용하는 언어 = 공공언어

공무원의 국어능력 향상 = 쉽고 바른 공공언어

쉽고 바른 공공언어 = 국민들이 누려야 할 인권

2. 국어책임관의 역할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국립국어원, 국어문화원)

온라인 교육(국립국어원)

국어 관련 능력 시험 응시 확대

직원 개개인의 쉽고 바른 공공언어에 대한 관심

3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3. 도움받을 수 있는 곳

국립국어원 누리집

표준국어대사전/우리말샘

공공언어 지원

정확한 외래어 표기 및 순화어 찾기


온라인 가나다(가나다 전화: 1599-9979)

3.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지역별 국어문화원

국어문화원

국민들의 국어 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국어 관련 전문 기관. 현재 전국에 20곳 운영 중



감사합니다

2018 경기도 국어책임관 국어문화원 공동 연찬회

2018. 9. 4.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

차 례

1.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 소개
2. 2017, 2018 경기도 국어문화진흥사업
3. 시군별 국어 사업 추진 현황 및 건의 사항
4. 국어책임관과 국어문화원의 협력 및 발전 방안 토의

1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 소개

1. 설립 배경

- 2010년 6월에 국어 기본법 제24조(국어상담소 지정 등)에 따라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이 기관 중 경기도 지역의 거점 문화원으로 지정됨.



2.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 주요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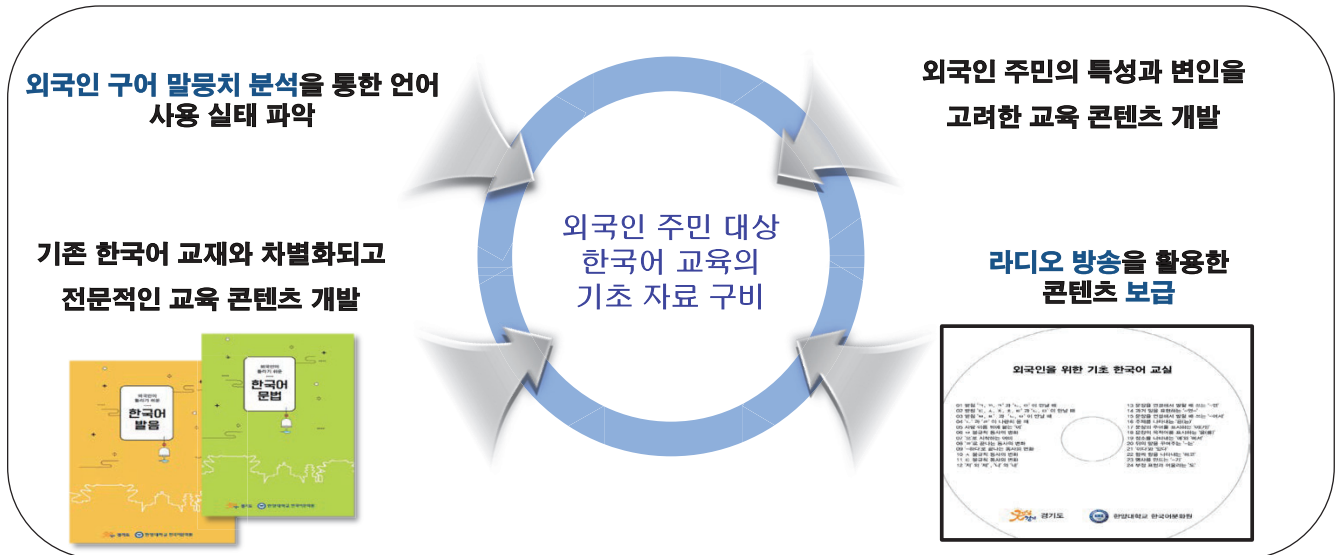
구분	과제명	기간	발주처 (지원기관)
공공언어 개선	경기도 관공서 누리집 용어 순화 사업	2010~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공공문서 언어 사용 실태와 개선 방안	2014~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 홍보 매체물 언어 개선 사업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교육	외국인 주민을 위한 한국어 문화 교실 운영	2010년~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재외 한국어 교사 초청 연수회	2011~2013	재외동포재단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글로벌브릿지 사업	2012~현재	한국연구재단
	청소년 꿈나무 말하기 멘토링	2017년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외국인 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2017년	경기도
실태 조사	외국인 주민의 언어 사용 실태와 의식 구조 조사	2014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 사회의 외국인 주민 한국어 말뭉치 구축	2015~2020년	한국연구재단
문화 행사	외국인 주민의 말하기 및 글쓰기 능력 경시 대회	2010년~현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어 문화 체험 행사(외국 학생 대상)		
	아름다운 우리말 가게 이름 공모전		
	다듬은 말(순화어) 공모전		

2

2017, 2018 경기도 국어문화진흥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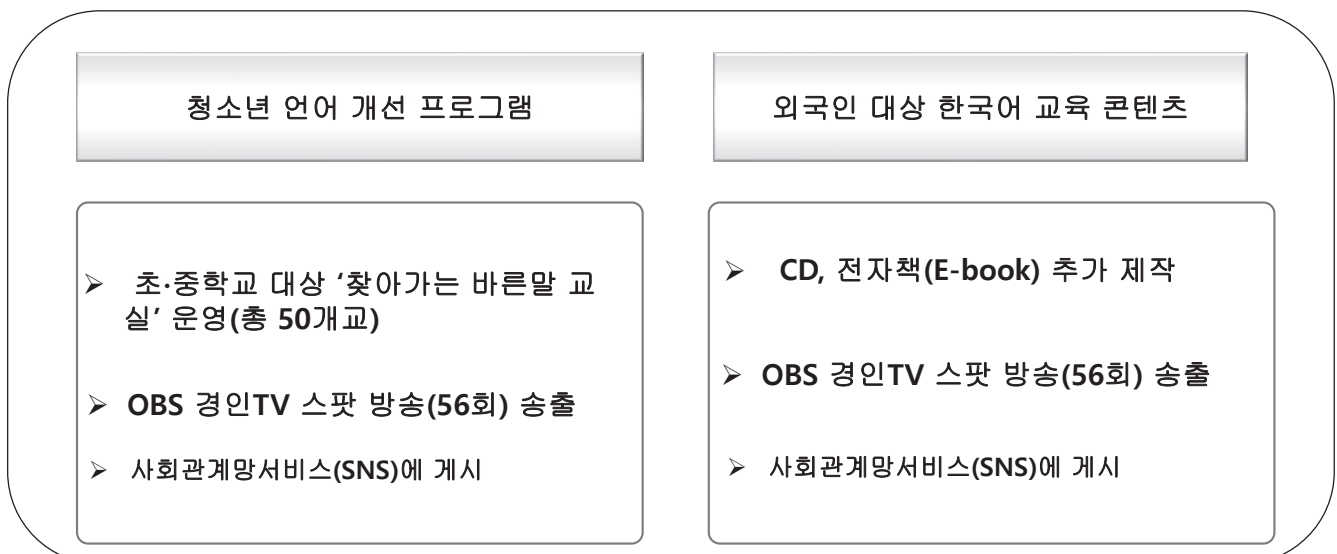
1. 2017 경기도 국어문화진흥사업

- 사업명: 외국인 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사업비: 총 5천만 원(도비 지원)
- 사업 내용



2. 2018 경기도 국어문화진흥사업

- 사업명: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및 한국어 교육 콘텐츠 연구 개발
- 사업비: 총 1억 원(도비 지원)
- 사업 내용



3

시군별 국어 사업 추진 현황 및 건의 사항

1. 시군별 국어 사업 추진 현황

교육

- 성인 문해 교육(수원시, 안산시, 파주시, 양주시, 구리시)
- 평생학습관 문해교사 양성과정(안산시)
-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노동자 한국어교육(안산시, 화성시, 평택시, 파주시, 군포시, 양주시)
- 통합 학습 시스템을 통한 올바른 국어 표기법 관련 프로그램(오산시)

문화행사

- 한글큰잔치(안산시)
- 정조 효 백일장(화성시)
- 한글날 기념 한글 사랑 캠페인(군포시)
- 학생토론 축제 및 토론 리그 등 운영(오산시)
- 세종대왕 전국한글취호대회(여주시)

1. 시군별 국어 사업 추진 현황

공공언어 개선

- 공무원 대상 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교육(부천시, 안산시, 평택시, 파주시, 군포시, 이천시, 구리시, 안성시)
- 내부행정시스템 ‘안녕 우리말’ 게시판 운영(평택시)
- 행정용어 등 순화(군포시)
- ‘아름다운 우리말’ 소식지 게재(이천시)
- ‘바른 말 고운 말’ 소식지 게재(오산시)

2. 건의 사항

- ✓ 공공언어 실태 조사, 보도자료 감수, 안내 표지판 개선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채용 지원 또는 의무화
- ✓ 국어 진흥 관련 효과가 높은 사업 추진 사례 안내
- ✓ 국어 사업 전문 인력이 부족하므로 경기도나 국어문화원과 협조하여 사업을 진행할 필요 있음.
- ✓ 한국어문화원의 교육 전문 인력 지원 다양화
- ✓ 국어책임관의 운영 시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적인 교육 및 예산지원
- ✓ 중앙부처 또는 광역지자체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급·교육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시군으로 배포
- ✓ 2019년 도 주요 시책 평가지표 산정 시 국어문화원 유무 등 각 지자체 여건 및 의견을 반영하여 형평성 있도록 추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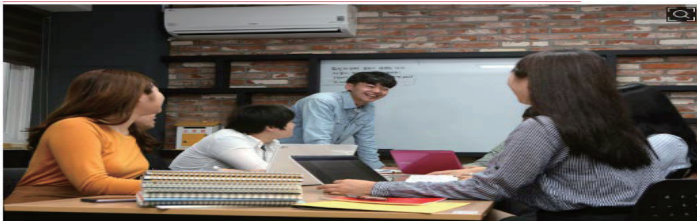
국어책임관과 국어문화원의 협력 및 발전 방안 토의

1. 타 지역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협업 사례(2017년)

충북대, 청주시민을 위한 인문학강연개설

☞ 김금란기자 | Ⓞ 승인 2018.01.02 18:22 | 💬 댓글 0

| 오는 4~25일 '일상 생활 속의 인문학' 무료로 진행



충북대학교는 오는 4일부터 25일까지 청주시민을 위한 인문학 강연 '일상 생활 속의 인문학'을 진행한다. 사진은 자료사진 / 충북대학교 제공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대학교는 오는 4일부터 25일까지 청주시민을 위한 인문학 강연 '일상 생활 속의 인문학'을 진행한다.

충북도청 / 음성군청

- ✓ 청주시민을 위한 인문학 강좌 개설,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청소년 대상) 운영
-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운영

1. 타 지역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협업 사례 (2017년)

세종시청 /
세종시교육청

세종시 '세종축제', 뮤지컬·백일장·전시로 만나는 '한글 사랑'



회 세종시 세종축제가 10월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세종호수공원과 세종시 일원에서 열린다.

- ✓ 세종시 누리집 언어 정비 및 간판 언어 실태 조사, 바른 국어생활 안내서 발간, 우리말 바로 쓰기 교육(KBS), 청소년 바른 언어 교육, 성인 문해 교육, 시민 국어문화학교, 한글의자 디자인 공모전
- ✓ 한글날 기념 행사 '세종사랑 전국 백일장'

1. 타 지역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협업 사례 (2017년)

전북도 '제3회 한글 큰잔치' 개최
호민정읍 반포 571동 맞아 전주향교 일원에서 전시·체험 등

이도형 기자 | 기사입력 2017/10/05 [19:02]



전북도청

- ✓ 한글날기념행사 '한글, 새롭게 날다': 한글사랑 노래자랑, 전국학생 백일장, 성인 문해학습 체험수기공모전, 사투리 손글씨 공모전
- ✓ 전라북도 방언 사전 편찬

1. 타 지역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협업 사례 (2017년)

충남도청 / 천안시청



- ✓ 결혼이주여성 동화책 번역반 운영, 충남 문화재 안내판 쉬운 말 풀이사업, 누리집 언어환경 대진단, 공무원 대상 공공언어 바로 쓰기 교육, 공공언어 사용 실태조사, 한글날기념행사 '우리말 겨루기 대회', 지역 축제 한글 부스 운영
-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충남1 거점운영기관,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 ✓ 충남평생교육진흥원: 다문화가정 여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 ✓ 충남교육청: 다문화 예비학교 한국어교사 양성 과정

2. 주요 사업 제언

- ✓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한 제도 운영
 - 행정기관 조직명, 사업명 개선을 위한 평가제 운영
 - 바른 우리말 사용 포상제 운영
- ✓ 쉽고 바른 공공언어 교육
 - 공공언어 교육과정 운영
 - 보도자료의 공공언어 사용 실태 점검 및 개선
 - 관광 홍보물의 언어 사용 실태 점검 및 개선
 - 시군 누리집 '우리말 가꿈터(가칭)' 운영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

2. 주요 사업 제안



일반인의 국어 능력 사용 증진

-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바른말 교실' 운영
- 청소년 대상 말하기 멘토링 사업
- 일반인 대상 국어 능력 향상 교육
- 인문학 강좌 개설 운영
- 성인 대상 문해 교육



외국인 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



탈북민을 위한 국어 교육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운영

경기도민의 언어사용
환경 개선

2. 주요 사업 제안



한글 문화 행사 개최

- 우리말 겨루기 대회(퀴즈 대회)
- 한글사랑 캠페인
- 우리말글 논술문 쓰기 대회
- 우리말 글쓰기 대회
- 다듬은 말(순화어) 공모전
- 한글 사랑 UCC 공모전
- 한글 간판 공모전



다문화 가정 및 주한 외국인 참여 연계 행사

- 외국인 한글 글짓기 대회
-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 외국인 참여 전통 민속 경연 대회



세종대왕과 한글 관련 답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한글, 한국어의 가치 확산

3. 주요 현안

- 국어책임관 및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방안
 -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국어 진흥 사업의 구체적 실천 방안
 - 시군간 협력 및 소통 강화 방안
-

감사합니다

경기도 공공 문서 개선 방안

- 보도 자료를 중심으로 -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

□ 공공언어의 개념과 개선의 필요성

- '공공언어'는 사적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개인적인 언어와 달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모든 언어를 뜻한다. '정부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언어'를 말한다.
- 필요성
 - 공공 문서는 정확성과 소통성이 생명이다.
 - 공공 문서, 특히 보도 자료는 일반 언중들의 언어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 소통이 원활한 사회를 위해 보도 자료의 언어 사용은 모범적이어야 한다.

□ 쉬운 공공언어의 요건

영역	요소	항목
소통성	용이성	문장을 적절한 길이로 작성하였는가? 쉽고 친숙한 용어와 어조를 사용하였는가? 읽는 사람이 보기 편하게 작성하였는가?
	정보성	정보를 적절한 형식으로 명료하게 제시하였는가? 정보의 양을 적절하게 제시하였는가? 정보의 배열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공공성	공공언어로서의 품격을 갖추었는가? 고압적, 권위적 표현을 쓰지 않았는가? 차별적 표현(성, 지역, 인종, 장애 등)을 쓰지 않았는가?
정확성	표현의 정확성	어휘를 적합하게 선택하였는가? 문장을 문법에 맞게 표현하였는가? 단락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였는가?
	표기의 정확성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준수하였는가? 띄어쓰기를 정확하게 하였는가?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준수하였는가?

□ 띄어쓰기 오류¹

1. 명사와 명사가 결합한 명사구 띄어쓰기

- 가. 가족체험 ☐ 가족 체험
- 나. 개방행사 ☐ 개방 행사
- 다. 개인부문 ☐ 개인 부문
- 라. 거리공연 ☐ 거리 공연
- 마. 현장체험 ☐ 현장 체험
- 바. 과다사용 ☐ 과다 사용
- 사. 관광명소 ☐ 관광 명소
- 아. 국비지원 ☐ 국비 지원
- 자. 기본계획 ☐ 기본 계획
- 차. 기본소양 ☐ 기본 소양
- 카. 대량생산 ☐ 대량 생산
- 타. 도민의견 ☐ 도민 의견
- 파. 문화공연 ☐ 문화 공연
- 하. 행사기간 ☐ 행사 기간

요점 정리

- 합성명사인지 구인지 구분
- 고유명사/전문용어 여부

□ 띄어쓰기 오류2

2. 의존명사 띄어쓰기

요점 정리

-의존명사 인지 여부

- 가. 경기도내 □> 경기도 내
- 나. 50여명 □> 50여 명
- 다. 김상인씨의 □> 김상인 씨의
- 라. 소통하는데 있다 □> 소통하는 데 있다
- 마. 왕실과 외척간 □> 왕실과 외척 간
- (참고) 즐길거리 □> 즐길 거리 (참고: 먹을거리, 먹거리)

□ 혼동하기 쉬운 의존명사; -간(부모와 자식 간 / 이틀간)

- 「의존명사」
- 「1」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까지의 사이.
 - ¶ 서울과 부산 간 야간열차.
- 「2」 ((일부 명사 뒤에 쓰여))‘관계’의 뜻을 나타내는 말.
 - ¶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
- 「3」 ((‘-고 -고 간에’, ‘-거나 -거나 간에’, ‘-든지 -든지 간에’ 구성으로 쓰여))앞에 나열된 말 가운데 어느 쪽인지를 가리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
 - ¶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간에 열심히만 해라.
- 「접사」
- 「1」 ((기간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동안’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 이틀간/한 달간/삼십 일간.
- 「2」 ((몇몇 명사 뒤에 붙어))‘장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 대장간/외양간.

요점 정리

-접사인지 의존명사인지

-(참고) ‘-별’은 붙여 씀(성별, 연령별, 국가별, 직업별)

□ 혼동하기 쉬운 의존명사; -바(느낀 바 / 검토한바)

- 「의존명사」
- 「1」 앞에서 말한 내용 그 자체나 일 따위를 나타내는 말.
 - ¶ 평소에 느낀 바를 말해라./각자 맡은 바 책임을 다하라./나라의 발전에 공헌하는 바가 크다.
- 「2」 ((어미 ‘-을’ 뒤에 쓰여))일의 방법이나 방도.
 - ¶ 어찌할 바를 모르다/나아갈 바를 밝히다/눈 돌 바를 모르다.
- 「3」 ((주로 ‘-은/는/을 바에(는)’ 구성으로 쓰여))앞말이 나타내는 일의 기회나 그리된 형편의 뜻을 나타내는 말.
 - ¶ 이왕 산 중턱까지 온 바에 꼭대기까지 올라갑시다./어차피 매를 맞을 바에는 먼저 맞겠다.
- 「4」 ((일인칭 대명사를 주어로 하고 ‘-는 바이다’ 구성으로 쓰여))자기주장을 단언적으로 강조하여 나타내는 말.
 - ¶ 우리는 우리의 굳건한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는 바이다.
- 「어미」
- 「1」 ((받침 없는 동사 어간, ‘ㄹ’ 받침인 동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문어체로) 뒤 절에서 어떤 사실을 말하기 위하여 그 사실이 있게 된 것과 관련된 과거의 어떤 상황을 미리 제시하는 데 쓰는 연결 어미. 앞 절의 상황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 ¶ 서류를 검토한바 몇 가지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었다.
- 「2」 ((‘이다’ 의 어간, 받침 없는 형용사 어간, ‘ㄹ’ 받침인 형용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문어체로) 뒤 절에서 어떤 사실을 말하기 위하여 그 사실이 있게 된 것과 관련된 상황을 제시하는 데 쓰는 연결 어미. ‘-는데’, ‘-니’ 따위에 가까운 뜻을 나타낸다.
 - ¶ 그는 나와 동창인바 그를 잘 알고 있다./너의 죄가 큰바 응당 벌을 받아야 한다.

• 요점 정리

- 의존명사인지 어미인지

예) 우리의 나아갈 바는 이미 정해진바 우리는 이제 그에 따를 뿐이다.

□ 혼동하기 쉬운 의존명사; -지(좋은지 모르겠다 / 떠난 지 오래되었다)

요점 정리

-의존명사(‘지’)인지 어미(‘은지/는지’)인지

- -지 「의존명사」

((어미 ‘-은’ 뒤에 쓰여))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말.

 - ¶ 그를 만난 지도 꽤 오래되었다./집을 떠난 지 어언 3년이 지났다./강아지가 집을 나간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
- -는지/은지 「어미」

[1]((‘있다’, ‘없다’, ‘계시다’ 의 어간, 동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연결 어미.

 - ¶ 아이들이 얼마나 떠드는지 책을 읽을 수가 없었다./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가로수 가지들이 꺾였다./무엇이 틀렸는지 답을 맞춰 보자.

[2]((‘있다’, ‘없다’, ‘계시다’ 의 어간, 동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해할 자리나 간접 인용절에 쓰여, 막연한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 ¶ 고향에는 잘 다녀오셨는지./제 동생이 일은 잘하는지요?

□ 혼동하기 쉬운 의존명사; -데(가는 데가 / 먹었는데)

- -데 「의존명사」
- 「1」 ‘곳’ 이나 ‘장소’ 의 뜻을 나타내는 말.
 - ¶ 의지할 데 없는 사람/예전에 가 본 데가 어디쯤인지 모르겠다. 그가 사는 데는 여기서 멀다.
- 「2」 ‘일’ 이나 ‘것’ 의 뜻을 나타내는 말.
 - ¶ 그 책을 다 읽는 데 삼 일이 걸렸다./사람을 돕는 데에 애 어른이 어디 있겠습니까?/그 사람은 오직 졸업장을 따는 데 목적이 있는 듯 전공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 「3」 ‘경우’ 의 뜻을 나타내는 말.
 - ¶ 머리 아픈 데 먹는 약/이 그릇은 귀한 거라 손님을 대접하는 데나 쓴다.
- -는데 「어미」
- [1] ((‘있다’ , ‘없다’ , ‘계시다’ 의 어간, 동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뒤 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
 - ¶ 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그 애는 노래는 잘 부르는데 춤은 잘 못 춰./눈이 오는데 차를 몰고 나가도 될까?
- [2] 「1」 ((‘있다’ , ‘없다’ , ‘계시다’ 의 어간, 동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해할 자리에 쓰여, 어떤 일을 감탄하는 뜻을 넣어 서술함으로써 그에 대한 청자의 반응을 기다리는 태도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
 - ¶ 잘 달리는데./성적이 많이 올랐는데?
- 「3」 ((‘있다’ , ‘없다’ , ‘계시다’ 의 어간, 동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의문사와 함께 쓰여))일정한 대답을 요구하며 물어보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 ¶ 뭐 먹었는데?/도대체 왜 그러는데?

요점 정리
-의존명사인지 어미인지

□ 혼동하기 쉬운 의존명사; -대로, -만큼, -뿐

- -대로 => 너대로, 배운 대로
- -만큼 => 하늘만큼, 운동한 만큼
- -뿐 => 너뿐이야, 떠날 뿐이야.

요점 정리
-의존명사인지 조사인지

□ 일관된 띄어쓰기

‘단체상부문 - 단체상 부문’

‘자전거안전모 - 자전거 안전모’

‘구성계획 - 구성 계획’

‘참여농가 - 참여 농가’

요점 정리

- 한 문서 안에서 띄어쓰기는 일관성이 있어야

□ 비표준어 사용

- 가. 낚시객 → 낚시인 | 낚시꾼 | 낚시 여행객
- 나. 성수철 → 성수기 | 성어기
- 다. 형사처벌(북한식 표현) → 형사처분
- 라. 부적정 ⇔ 부적절 / 걱정하지 않다
- 마. 현행화

요점 정리

- 사전에 없는 말은 가능하면 쓰지 말아야

□ 외국어 사용₁

- 가. 다운로드 → 내려받기
- 나. 로컬푸드 → 지역 먹을거리 | 향토 먹을거리
- 다. 리모델링 → 새단장 | 구조 변경
- 라. 마스터 플랜 → 종합 계획 | 기본 계획 | 기본 설계
- 마. 메시지 → 성명서 | 교서 | 전갈 | 알림(말)
- 바. 메신저 → 쪽지창
- 사. 배너 → 막대 광고 | 띠 광고 | 현수막 (광고)
- 아. 버스킹 → 길거리 공연
- 자. 보드판 → 게시판
- 차. 애니메이션 → 만화 영화
- 카. 이벤트 → 기획 행사 | 행사
- 타. 인센티브 → 성과급 | 유인책 | 특전
- 파. 첼리스트 → 첼로 연주자
- 하. 홈페이지 → 누리집

□ 외국어 사용₂

- 가. 버스킹공연
- 나. 메인 정원
- 다. 미니화분
- 라. 쌀कु키
- 마. 체험부스

요점 정리

- 외래어 표기법 준수

- 국립국어원-사전/국어지식-외래어 표기법 참조

□ 외래어 표기

- 가. 레파토리 → 레퍼토리
- 나. 첼리스트 → 첼리스트
- 가. 리플렛 → 리플릿
- 나. 메뉴얼 → 매뉴얼
- 다. 브로셔 → 브로슈어
- 라. 서포터즈 → 서포터스
- 마. 콘텐츠 → 콘텐츠
- 바. 컨퍼런스 → 콘퍼런스
- 사. 팜플릿 | 팜플렛 → 팸플릿

□ 외국 문자 본문 노출

- CNG버스 ⇨ (압축) 천연 가스 버스
- 중국의 ‘Wenbo’社와
- ‘엄청난 벤처’ (대표 이유미)社가
- 道·市합동점검
- 道, 자전거안전모 착용 생활화 위한 종합대책 마련
- ASV
- ERICA
- SNS

요점 정리

- 본문은 한글 표기로

- 필요에 따라 외국문자 등은 괄호 등을 활용

- 예시; 에리카 캠퍼스(ERICA CAMPUS)

□ 어려운 어휘

- 대리청정 ⇨ 대리청정(왕이 병이 들거나 나이가 들어 정사를 제대로 돌볼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세자나 세제가 왕 대신 정사를 돌보는 것)
- 비닐피복 ⇨ 비닐 덮기 (※ ‘거죽을 덮어 씌우다’의 뜻을 지닌 ‘피복’의 순화어는 ‘덮기’이다.)
- 생력 ⇨ 생력(기계 등으로 노동력을 줄임)
- 연사회 (※ 농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인 듯한데, 사전에도 없는 말이다.)
- 예찰 ⇨ 예찰(豫察) (※ ‘편지’의 의미를 지닌 ‘예찰’이라는 말은 사전에도 수록되지 않은 어려운 말이다. 사전에는 ‘미리 살피다’는 뜻을 지닌 ‘예찰(豫察)’만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쉬운 말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다못해 괄호 안에 한자라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저감(낮추어 줄임.)
- 청사 내와 ⇨ 청사 안과

요점 정리

- 쉬운 용어 사용

- 불가피한 경우에는 괄호 등을 활용하여 추가 정보 제시(원어, 부연 설명 등)

□ 문장

- 지나치게 긴 문장

- 예시

oooo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가입 절차는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재난안전 위해 요인을 홈페이지에 제보할 경우에는 1건당 1시간의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하며 하루 최대 4시간(4건)까지 봉사시간을 인정하고 있다.

⇒ oooo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가입 절차는 누리집(홈페이지)을 보면 알 수 있다. 재난 안전 위해 요인을 누리집에 제보할 경우에는 1건당 1시간의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하루 최대 4시간(4건)까지 (가능하다/봉사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요점 정리

- 짧은 문장으로 표현(쉼표 등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 문장이 길어지면 오류 가능성도 높아짐

□ 문장

- 부적절한 호응 관계

- 예시

- 관상가치가 높은 다육식물을 심어 멋있하고 삭막한 실내외 벽면을 녹화하는 데에 매우 적합하며, 실내외 온도와 습도조절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농기원의 설명이다.
- □ 다육식물은 관상 가치가 높아 멋있하고 삭막한 실내외 벽면을 녹화하는 데에 매우 적합하며, 실내외 온도와 습도조절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농기원의 설명이다.

요점 정리

- “-에 적합하다” 는 주어가 없어서 적절한 주술 관계를 이루지 못한 경우
- 적절한 주-술 관계 등 적절한 호응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작성

□ 문장

- 피동 표현

- 예시

- 농산물 판매마당에서는 젊은 농부들이 생산한 건강한 먹을거리를 구매할 수 있으며, 쌀 쿠키 그림그리기, 쌀비누 만들기, 미니화분 만들기, 곤충체험, 유가공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부스도 마련됐다.
- ⇨ 농산물 판매마당에서는 젊은 농부들이 생산한 건강한 먹을거리를 구매할 수 있으며, 쌀쿠키 그림그리기, 쌀비누 만들기, 미니화분 만들기, 곤충체험, 유가공품 만들기 등의 체험부스에서 다양한 체험 활동도 할 수 있다.

요점 정리

- 선행절은 능동 표현인데 후행절은 피동 표현
- 가능하면 능동 표현으로

□ 글의 구성과 단락

○ 한 문장 단락 형식

“안보와 재난예방 길거리에서 배우자” 안보재난예방 그림작품 길거리 전시회

[1] 경기도에서는 지난 6월 안보재난장비전시회(6.12~14)의 문화행사로 개최된 안보와 재난예방을 주제로 한 그림그리기대회 작품 212여점을 오는 7월12일부터 7월20일 9일간 홈플러스 앞 추동교 양쪽구간에서 거리전시회를 개최한다.

[2] 올해로 3회째 개최된 안보재난예방 그림그리기대회의 작품을 직접 전시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3] 수상자뿐만 아니라 참가자 전원에 대한 작품을 전시하여 대회참가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주민 누구나 안보와 재난예방을 주제로 된 그림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4] 초등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강은서(8살) 학생은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림을 전시할 수 있어 좋고, 떨린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5] 경기도는 학생들의 안보의식 고취와 재난예방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안보재난장비전시회와 연계된 웅변대회, 안보포럼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있다.

요점 정리

- 단락 구성을 잘 해야 함
- 한 문장 단락을 피할 것

□ 단락(문단)만 잘 만들어도 좋은 글

○ 단락의 구조: 소주제문(1)+뒷받침 내용(n)

원스틴 처칠은 유머의 달인으로 많은 에피소드를 남겼다.	소주제문
하루는 그의 늦잠이 도마에 올랐다. "영국은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게 으른 정치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정적(政敵)은 점잖게, 그러나 차갑게 꼬집었다. 그냥 물러설 처칠이 아니었다. "글쎄요, 당신도 나 처럼 예쁜 부인과 함께 산다면 아침에 결코 일찍 일어나지 못할걸요." 채치 있는 반격에 정적은 본전도 찾지 못했다. 또 한번은 목욕 후의 알몸을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에게 들켰다. "영국 총리는 미국 대통령에게 전혀 감추는 게 없습니다." 당황이 되었을 상황을 역시 유머로 넘겼다.	뒷받침 내용

□ 개선 방안

- 표기 오류 개선1: 사전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실 어떤 말이 붙여 써야 하는 합성어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가령 “학교교육” 과 같은 붙여 써야 할 것인지 띄어 써야 하는지 판단이 쉽지 않다. “학교교육” 이 “학교” 와 “교육” 이라는 말의 단순한 결합인지, 아니면 특화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보는 이에 따라서도 각기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단순한 의미의 결합이라면 띄어 써야 하고 새로운 의미 획득이라면 붙여 써야 하는데, 판단이 쉽지 않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사전이다. 사전 검색을 해서 표제어로 있으면 합성어로 인정된 것이니 붙여 써야 한다. 따라서 글을 쓸 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검색창을 열어 놓고 작업을 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을 검색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 표기오류 개선2: 평소에 맞춤법 등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보들을 습득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맞춤법 규정이 많기도 하거니와 예외 규정 등이 많아 이를 완전히 암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문서를 작성하다가 알쏭달쏭한 경우가 있으면 그때마다 해당 맞춤법 규정을 찾아서 관련 규정을 확실히 이해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전산망에 검색을 해보면 관련 규정이나 관련 정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개선 방안

- 어휘 개선: 우리말로 표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려운 외국어나 전문용어보다는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외국어의 경우에는 국립국어원의 누리집에 있는 순화어 찾기 정보를 활용하면 편리하다. 외국어나 전문용어에 관하여 적절한 우리말 순화어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도 가능하면 풀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개선 방안

- 문장 오류 개선1: 가능하면 문장을 짧게 쓰는 것이 좋다. 앞서도 살핀 바와 같이 문장이 길어지다 보면 주술 관계 등이 복잡해져서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문장을 짧게 쓰면 오류 가능성도 줄어들 뿐 아니라 정보 전달의 정확성과 용이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 문장 오류 개선2: 문장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좋은 방법은 문서 작성 후 소리 내어 읽어보는 것도 좋다. 소리를 내서 읽다가 자연스럽게 읽히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문장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자연스럽게 낭독이 안 되는 부분을 유심히 살펴서 오류가 없는지 점검하면 된다.

□ 개선 방안

글의 구성과 단락 전개에의 오류 개선: 초고를 완성한 후에 다듬어쓰기를 철저히 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 사실 글을 써나가는 과정에서는 문장들을 만드는 데에 집중하다 보면, 전체적인 글의 구성이나 단락 전개에 만전을 기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초고를 작성한 후 다시 읽고 고쳐쓰는 과정에서 수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글을 수정 보완할 때에는 같은 내용을 함께 묶어서 단락을 제대로 전개하고 그 단락들을 순리적으로 배열하는 데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이상적인 글의 구성과 단락의 전개를 위하여 초고를 완성한 후에는 아래의 사항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1) 글의 구성

- 중복이나 누락된 내용은 없는가?
- 글을 이루는 각 단락의 내용이 전체 주제와 무관하거나 거리가 먼 내용은 없는가?
- 단락의 배열이 순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2) 단락 전개

- 하나의 소주제(단락의 주제)와 그에 대한 뒷받침 내용으로 단락 전개가 이루어졌는가? (2개 이상의 소주제가 있거나 뒷받침 내용이 없으면 잘못된 단락 전개임.)
- 소주제와 무관하거나 거리가 먼 뒷받침 내용은 없는가?
- 소주제와 뒷받침 내용들이 순리적으로 전개되고 있는가?
- 단락의 내용이 소주제를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는가?



감사합니다!